

#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Cheonan as the History of Regional Movements

김 형 목\*

Hyung-mok Kim

### 국문요약

한말 천안지역은 세장산전투와 성환전투, 직산금광 개발, 경부선 부설 등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와중에 외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외채를 갚아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기사는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 상황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나눔과 책임’에 입각한 국채보상 운동이었다. 신호탄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국내외로 파급되어 나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안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땅히 스스로가 주인공처럼 다가갔다.

계몽가들은 취지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의연금 모금을 위한 국채 보상회를 조직했다. 이는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징검다리’나 마찬가지였다. 변화는 주민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 책무를 일깨우는 커다란 자극제로서 다가왔다. 대한제국기 이곳 다양한 민족 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호흡을 같이 한다.

<http://doi.org/10.56475/ygsr.2023.28.1.67>

논문투고일 : 2023.05.14. 논문심사일 : 2023.05.16. 게재확정일 : 2023.06.01.

\*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이사(E-mail: hyungmok59@hanmail.net)

The Commemorative Association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 director

국채보상운동은 나랏빛 갚기를 위한 일환이었으나 당대인의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인식 변화는 이와 맞물려 진전을 거듭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운 현장은 바로 국채보상을 위한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분이나 남녀 노소에 구애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실은 다문화시대에 공존해야 하는 진정한 정신적인 유산이 아닐까.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자유는 책임과 희생이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식민지화, 나랏빛 갚기, 국채보상취지서, 국채보상회, 사회적 책무, 나눔과 책임, 생활공동체, 다문화시대

## 목 차

|                                                                |                                                       |
|----------------------------------------------------------------|-------------------------------------------------------|
| I. 머리말<br>II. 천안지역의 사회변동과<br>항일의식 확산<br>III. 국민운동으로서<br>국채보상운동 | IV.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br>전개 양상<br>V. 지역운동사에서 위상<br>VI. 맺음말 |
|----------------------------------------------------------------|-------------------------------------------------------|

## I. 머리말

국채보상운동은 나랏빛 갚기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주모(酒母)나 시장에서 채소 파는 노파(老婆)는 물론 생계조차 어려운 걸인·죄수·인력거꾼·급사·도둑·백정·야장(冶匠)·무당·매음녀 등도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철부지인 10세 미만 어린이들도 세뱃돈을 의연금으로 내놓아 당대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sup>1)</sup> 나랏빛 청산을 위한 자발적인 동참은 일찍이 우리

1) 최혜령(2019), 『빛, 나눔으로 빛이 되다- 국채보상운동이야기』, 국채보상운동기념 사업회와 홍성현(2021), 『국채보상운동 의연사례』-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20권,

역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다. 한민족이 혼연일체로 전개한 대한제국기를 대표하는 국권수호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그래서 후자는 국채보상운동을 한국독립운동사 첫머리를 장식하는 ‘거사’라고 평가했다.

국채보상운동 100돌을 맞은 2007년을 전후로 5권의 『국채보상운동 100년』 자료집 간행,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개관과 기념공원 조성,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등으로 역사적인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단순한’ 경제운동 차원을 넘어 변화에 부응하려는 국민운동으로서 성격 규정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17년 10월 30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sup>2)</sup> 이제 국채보상운동은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눔과 책임(Sharing & Responsibility)’이라는 정신적인 유산은 ‘한류열풍’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 현장으로 다가오리라 기대된다. 이를 기념하여 201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자료집(총 13권)이 간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반인의 관심에 부응하여 학술회의와 아카데미 강연 등을 담은 『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총 29권)』도 이미 간행 · 보급되었다.

그럼에도 지역별 연구는 일부에 국한되거나 편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주요 활동가의 참여 동기나 이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도서출판 선인의 다양한 미답사레나 의연사레 참조; 홍성현(2022), 「국채보상운동 그 아름다운 주인공들 이야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국채보상운동기록물과 한국의 서원』-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27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 김형목(2021), 「국채보상운동이 깃발을 올린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3권, 도서출판 선인, 16~17쪽; 김형목(2022), 「충청도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한국의 서원』-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27권.

계획 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마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3)</sup>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실패 원인은 너무나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는 1908년 베델(裴說) 추방 공작과 양기탁(梁起鐸)의 의연금횡령사건을 주요 원인으로 주목했다. 두 사건은 국채보상운동 열기가 거의 식어가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지나친 확대 해석은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도 근대교육운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전국적인 상황과 성격 등을 고려한 최근 연구는 대한제국기 천안학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였다.<sup>4)</sup> 이 글은 지금까지 연구를 중심으로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이 지역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올바른 위상을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천안지역 사회변동과 일제 침략이 초래한 항일의식 고조에 주목했다. 외세 침략은 천안인들에게 위기 의식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어 국채보상운동이 삽시간에 국민운동으로 전개된 상황을 파악했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전후로 ‘식물국가’에 불과할 만큼 너무나 나약하였다. ‘허수아비 정부’의 각료들은 차관을 들어오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구체적인

3) 김형목(2020),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발전」, 『충남독립운동사』 I-국권회복운동 · 1910년대 독립운동,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93~294쪽.

4) 김형목(2008), 「한말 천안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 「천안지역 계몽단체와 근대교육운동」, 단국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김형목(2022), 「대한제국기 천안지역 교육계몽운동의 전개와 성격」, 단국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다시 조명한 본 천안학의 이해』, 단국대학교 출판부.

예산계획이 사실상 전혀 없는 한심한 상황이었다. 이리하여 1906년 연말에 국채는 대한제국 1년간 예산에 맞먹는 1,300만 원에 달했다. 통감부를 등에 업은 일본인의 급속한 유입과 화폐개혁은 토착자본을 철저하게 붕괴시켜 나갔다.

이어 천안지역에 조직된 국채보상소 현황, 전개 양상 등을 살펴 보았다. 활동가들은 취지서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국권 회복을 위한 왜채(倭債) 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널리 홍보하는데 열성적이었다. 이는 ‘국채보상=국민의무’로서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다.<sup>5)</sup> 즉 국채는 나랏빚이 아니라 한민족이 갚아야 하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인식했다. 더욱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 하려는 인식과 가치관 변화는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향촌공동체의 운영원리에 의한 생활 정도에 따른 의연금 배정(配定)이나 문중단위 의연금 모금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인 갈등도 있었으나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과 신분을 초월한 ‘하나됨’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이 국권회복운동 중 지역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했다. 참여는 주민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동시에 자아를 각성시키는 커다란 자극제였다. 변화에 부응한 각자의 능력 배양은 근대교육 보급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을사늑약을 전후로 이곳에서 전개된 사립학교와 약학에 의한 근대교육 확산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5) 『西民爭赴國債報償』, 『만세보』 1907년 2월 24일 잡보; 『國債報償發起所』, 『황성신문』 1907년 4월 6일 잡보, 『兩郡義舉』 5월 1일 잡보.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과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는 이와 맞물려 증폭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는 동시에 근대적인 시민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었다. 소중한 경험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1997년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 Ⅱ. 천안지역의 사회변동과 항일의식 확산

1894년 갑오농민전쟁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크게 요동쳤다. 농민군은 전세를 반전하기 위해 결전을 목천 세성산(細城山) 부근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전개했다. 세성산전투는 10월 21일 새벽부터 처절하게 전개되었다. 인근 천안·연기·논산·전의·아산 등지에서 모여든 농민군은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기세였다.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농민군은 수적으로 몇 배 많았으나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관군과 대적하기에 역부족이었다.<sup>6)</sup> 이두항(李斗瓚)이 이끄는 관군은 맞은편 산에 일부 병력을 배치하여 지원사격을 나눴다. 농민군은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을 이용하여 거세게 항전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관군의 막강한 화력에 압도당하여 결국 많은 사상자와 군수품을 빼앗긴 채 패배하고 말았다. 일부는 20리 정도 떨어진 작성산으로 후퇴하여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절벽 밑에 매복한 관군의 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는 재기불능 상태에 내몰렸다.

6) 이이화(2008), 『이희인 세성산전투를 이끈 깨끗한 선비』, 『파랑새는 산을 넘고』, 김영사.

농민군은 세성산 정상에 쌓아놓은 많은 무기와 군량미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전사자 400여 명, 중경상자 770여 명, 포로로 수십 명 등 천 명 이상에 달했다.<sup>7)</sup> 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세성산에 집결하여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농민군의 염원은 좌절되었다. 일부 병력은 사태를 수습한 후 세성산성으로 들어가 재기를 엿보거나 마중군(馬中軍)이 이끄는 활빈당(活貧黨)에 가담하여 반봉건 · 반침략의 선봉에 나섰다.<sup>8)</sup>

이와 동시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천안(당시는 직산군 성환)과 아산 일대에서 벌어졌다.<sup>9)</sup>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전개된 성환전투는 외세의 위력을 절감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왔다. 승기를 잡은 일본군은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군수품을 마음대로 징발하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놀란 주민들은 산속이나 인근 지역으로 피신하기에 급급하여 사회적인 불안이 확산을 거듭했다. 처절한 전장(戰場)은 배외의식을 새삼스럽게 일깨우는 현장이자 국력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현실로서 다가왔다.

직산지역은 일찍부터 금광 개발이 이루어졌다. 토지에서 배제된 농민들은 이곳으로 몰려들어 광산촌을 형성할 정도로 번성했다. 1895년 『한성신보』 기사에도 직산에서 사사로이 채금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파악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사였다.<sup>10)</sup> 이에 금광위원을

7) 김양식(2009),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 전투」, 『군사』 70, 국방부 군사연구소, 161~164쪽.

8) 박찬승(1984),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 『한국학보』 35, 일지사, 125~129쪽; 정을경(2021),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151~152쪽.

9) 성주현(2021), 「청일전쟁과 천안, 성환전투」,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상, 132~135쪽.

10) 정내수(2012), 「일제의 직산 금광 수탈」,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문화

파견하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농상공부에서 금광 특파원을 파견했다. 이후에도 43개의 유망 광산의 하나로서 내장원 관장하에 계속 채광되었다. 다수의 평안도와 경상도 출신 광부를 포함한 수천 명이 채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광산 성쇠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었으나 약 2,000명 이상이였다. 일부 계절적인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전업적인 광부들이었다.

흔미한 국내정세를 틈타 제국주의 열강은 오직 이권 침탈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주요한 이권 중 열강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단연 금광채굴권이었다.<sup>11)</sup> 광산개발권을 차지한 일본인들은 노동력 착취와 더불어 저임금과 임금 체불 등을 일삼았다. 광부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개선, 민족적인 차별대우 철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맞섰다.<sup>12)</sup> 소망과 달리 이러한 요구는 거의 무시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물려드는 풍부한 잉여노동력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또한 인근에서 활동하던 의병진은 군자금 모금을 위해 광산 주변에 자주 나타났다. 일본군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등 자신들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개심을 드러내었다.<sup>13)</sup>

천안은 일찍부터 하삼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였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흥타령인 ‘천안삼거리’ 이미지는 이와

연구원.

- 11) 廣瀬貞三(1985), 「19世紀末日本の朝鮮鉱山利権獲得について—忠清道稷山金鉱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조선사연구회.
- 12)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68쪽.
- 13) 국사편찬위원회(1909), 「韓國駐劄軍參謀長」,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의병편 VI)』 13; 이배용(1989),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성환문화원(1998), 『일제의 직산 금광침탈사』.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온양온천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천안삼거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sup>14)</sup> 이제 천안은 온양온천으로 가는 중간기착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05년 경부선 개통된 이후 물화 집산과 편리한 유통망은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시가 개설되는 등 기존 상권(商圈)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직산역 · 성환역 · 소정리역 등은 지역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특히 성환역은 보통역으로 시작하였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은 지역이라 이곳 일대를 전승지로서 인식하였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전승기념비나 전적비 등을 세워 인근에 사는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명승지가 되었다. 최남선(崔南善)의 『경부철도가원제목은 경부철도노래』는 당시 변화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역사적인 산물이다.<sup>15)</sup> 대량 유통에 따른 상권 변화는 인구

14) 「시사 · 단평」,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23일; 「病院鶯歌」,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23일 잡보. 이 기사는 이완용(이완인)의 친일 행각을 비난하는 내용과 온양온천이 새로운 관광지로서 부각된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병가세 문병가세 온양온천 문병가세  
 뉘문병을 가잔말가 이완인과 문병가세  
 천안삼거리 능수버들은 가지가지 수십이오  
 앞새앞새 수색일세 울고가는 저피꼬리  
 그소리가 슬프도다 시국풍운 농락타가  
 무슨기미 보았는지 추풍사만 노래하니  
 그신세가 한가하다 가족대해 탄식할 때  
 보전직책 땡랑하다 당시사를 생각하니  
 일장춘몽 어이없다 백만계책 추출하여  
 청일전쟁 되게하고 아관파천 되게하며  
 러일전쟁 되게하면 그결과가 이리됐네  
 백만사가 그릇되니 두려운몸 없을소냐  
 송우암을 양모타가 사이지차 한심쿠나  
 일문재산 넉넉하니 구복지계 근심없다  
 변천시기 되었으니 가기로만 결심이나  
 진퇴유곡 어찌할고 일평생이 가련하다  
 피꼬리로 리롱

15)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69쪽.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더불어 외부 세계와 소통으로 주민들 인식이 심화되는 등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는 상황과 마주했다. 이처럼 일제의 대륙 침탈을 위한 철도는 일상사를 변모시키는 촉진제였다. 곧 철도는 외세 침탈과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라는 ‘이중적인’ 시선으로 다가온다.

러일전쟁 발발과 을사늑약을 전후로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는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현실이었다. 많은 민족선각자와 지식들은 자결과 순국으로 맞서는 등 잠재된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천안청년회는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자결·순국한 민영환(閔泳煥)·조병세(趙秉世) 등을 기리기 위하여 복구정(伏龜亭)<sup>16)</sup>에 충신사(忠正祠) 건립을 계획했다. 건립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빙자한 불법행위 등으로 주민들 반발로 중단되고 말았다.<sup>17)</sup> 또한 직산인 심하택(沈夏澤)·이태형(李泰衡)과 목천 박용래(朴龍來) 등은 쓰시마에 유배되어 단식 순국한 최익현(崔益鉉) 운구에 필요한 장례비 마련을 위한 의연금 모금에 나섰다.<sup>18)</sup> 유럽계는 물론 주민들에게 충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국권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천안·목천·직산 읍내 시가지 정비와 더불어 주세·연초(烟草)세·시장세·가옥세 등 새로운 세금징수로 이어졌다. 가옥

16) 제이풍수사, 『풍류를 즐겼던 천안의 복구정을 찾아』, 천안시 북면 연춘리 243-29번지에 위치한 정자로 국도 21번과 691번이 만나는 삼거리에 있다. 선조 때에 지은 정자로 영조 대에 신광수(申光洙)·이인실·이세희 등이 머물며 풍류를 즐겼다.

17)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8일 광고, 『黃龍挾雜』 1909년 4월 2일 잡보.

18) 『慕忠建祠』,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6일 잡보, 『六忠建祠』 11월 21일 잡보; 『義不可勸』, 『황성신문』 1907년 1월 12일 잡보.

규칙에 따르면 1등 10원, 2등 8원, 3등 6원, 4등 4원, 5등 2원, 6등 1원, 7등 50전, 8등 30전이었다.<sup>19)</sup> 이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근대적인 ‘식민도시’ 정비와 식민지배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1909년 당시 예상 세입금은 “가옥세 · 주세 · 연초세 세 법률을 반포한 바를 조사한즉 본년도 수입 예상은 가옥세 21만여 원, 연초세 48만 6천여 원(경작세 41만 6천여 원, 판매세 7만여 원), 주세 16만 3천여 원 등으로 합계 86만 원이라더라.”<sup>20)</sup> 통감부 당국자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오직 세수 확대에 혈안이었다. 천안인들은 잡세 징수에 크게 반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빈번히 묵살되었다.

충청남도 직산군 재무서장 일본인 수교복희(水橋福熙)는 그 지방 주상(酒商)에게 주세를 다수히 누봉함으로 주상 등이 감세하여 달라고 청원하니 수교복희가 도로 욕설로 꾸짖으며 구타하고 또 그 고을 은결이 2천결이다 칭하고 고을 인민에게 물리게 하는 고로 인민들이 분히 여겨 관찰부를 겸하여 탁지부에 호소한다더라.<sup>21)</sup>

충청남도 천안 인민들은 가옥세와 주초세를 반대하기 위하여 3일 전에 인민 60여 명이 모여 그 지방 재무서를 곧바로 압박하고자 하는데 일본 헌병과 경찰관이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고자 하나 인민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이 모인다더라.<sup>22)</sup>

충남 천안군 원일면 이외 4면 인민은 주세 · 연초세 · 가옥세를 반대하려 목하 방침을 의론 중인데 그곳에 주재한 순사는 협력하여 군중을 해산하며 불온한 무리가 있을까 엄중히 경계한다더라.<sup>23)</sup>

19) 『稅屋鑄布』,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9일 잡보, 『家稅規定』 5월 12일 잡보, 『徵稅規則』 5월 30일 잡보, 『酒草家三稅確定』 1909년 1월 27일 잡보, 『가옥세규칙수정』,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9일 잡보, 『가옥세규칙』 5월 30일 잡보, 『一等家二千戶』, 『家屋貲等分』, 『황성신문』 1908년 5월 12일 잡보, 『稅額增加』 5월 13일 잡보.

20) 『家屋酒草稅總額』,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4일 잡보.

21) 『稷民呼訴』,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5일 잡보, 『어불성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5일 잡보.

22) 『천안군민회』,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9일 잡보.

23) 『三稅反對』, 『황성신문』 1910년 3월 9일 잡보.

충청남도 천안군 인민이 주초세 등을 반대하기 위하여 청원할 차로 모인다함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다시 들은 즉 천여 명이 모여 그 고을 재무사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데 그 지방 경찰관이 해산시키고 지금도 경계하는 중이라더라.<sup>24)</sup>

경부선 개통 이후 천안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주거지도 형성되었다. 일본인 관리들은 자의적으로 치안·행정권을 남발하면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민중생존권을 크게 위협했다. 지방관리들은 이를 방관하거나 외면하기에 급급한 분위기였다.<sup>25)</sup> 일부는 이에 편승하는 등 주민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권력에 빌붙은 잡류배도 일본인과 협잡을 일삼아 증폭되는 불신감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부철도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에 대한 갈취와 사기 등이었다.<sup>26)</sup> 여기에는 민족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변동과 일제의 침탈을 목격하면서 천안인들 항일의식은 고조를 거듭했다. 세성산전투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염원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성환전투에서 승리한 일제는 민가에 대한 토색질을 다반사로 자행하였다. 합법을 가장한 가혹한 잡세 징수는 민중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현실인식 심화와 더불어 국권의 중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24) 『安民大會』,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2일 잡보; 『천안인민대회』,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2일 잡보.

25)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69쪽.

26) 『修理費難辦』, 『만세보』 1906년 11월 29일 잡보; 『網戶網民』,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28일 잡보; 『보조원의 형편』,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5일 잡보; 『天安地段價分給』, 『雜奸莫售』, 『황성신문』 1907년 9월 17일 잡보, 『稷其魚肉』 1909년 9월 15일 잡보.

### Ⅲ. 국민운동으로서 국채보상운동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는 대한제국에 대한 차관 공세에 적극적이었다.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다 다네따로(目賀田種太郎)는 ‘화폐개혁’을 주도했다. 목적은 한국인 화폐자산 수탈로 민족자본을 파산시키는 동시에 불환지폐인 제일은행권 유통 · 보급이었다. 구매력이 없는 통화를 들어와 식민지 기반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경비는 차관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였다.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은 ‘금융 공황’ 일으킴으로 일제의 금융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sup>27)</sup> 구채(舊債) 상환, 세계부족보충비(歲計不足補充費) 명목의 국고증권채(國庫證券債), 금융공황 구제나 민간금융 지원을 구실로 한 금융자금채(金融資金債) 등도 식민지 경영을 위한 일환이었다. 그런 만큼 금융공황에 의한 전황(錢荒)은 한국인 기업가나 상인층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sup>28)</sup>

토착자본 몰락은 곧바로 일본인 자본가의 한반도로 유입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 이민 급격한 증가는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김광제(金光濟)는 상소문을 통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상소문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했다. 요지는 “이웃 나라(일본)의 간악한 자들을 끼고 간악한 자들은 저들에게 붙은 것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못 간악한 자들을 사랑 · 총애 · 믿으시니 신은 그 어떤 연유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며 간신들의 적폐를 지적했다.<sup>29)</sup>

27)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70쪽.

28) 「국초·문제」,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3일 논설.

29) 「正三品金鴻濟上疏文(1905년)」,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기업자금 명목으로 도입된 막대한 차관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되었다.<sup>30)</sup> 차관 공세로 국채는 1906년 12월 현재 대한제국 1년간 예산에 버금가는 1,300여만 원에 달했다. 일제 ‘꼭두각시’에 불과한 친일내각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는 한심한 현실이었다. 저들은 차관을 미끼로 제공되는 ‘로비자금(口文)’ 확보에만 눈독을 들였다. 사리사욕을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다.<sup>31)</sup>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에 대구광문사(大邱光文社) 특별회에서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발의로 시작되었다. 회원들은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를 발표하는 등 전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sup>32)</sup> 주요 내용은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갚지 못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고로서 갚을 길이 전혀 없으니 인민이 3개월 동안 단연하여 그 대금으로 국채를 갚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자.”였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건강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기호품인 담배를 끊어 그 대금으로 왜채를 갚자는 숭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김광제는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나라가 진 빚을 국민이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했다.<sup>33)</sup>

의연금 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군민대회(郡民大會) 개최함

30) 오두환(1993), 「한말 차관문제의 전개과정」,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52~53쪽.

31) 김형목(2008), 「국채보상운동」, 『충청남도지(근대)』 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54~256쪽.

32)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 잡보.

33) 김광제(1908), 「國債報償發起會 演說」, 『演說大海』, 광동서관; 석람김광제선생유고집 발간위원회(2007), 『독립지사 김광제선생 유고집 민족해방을 꿈꾸던 선각자(증보판)』, 일신당, 294~296쪽에 재수록.

으로 신호탄을 쏘았다. 『제국신문』을 비롯한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 · 『만세보』 등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sup>34)</sup> 누군가 시작을 알리면 동참하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다. 장지연(張志淵)은 직접 현지로 달려가 상황과 국채보상이 갖는 의미를 상세하게 알렸다.<sup>35)</sup>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가 발표된 다음날인 2월 22일 서울에서 김성희(金成喜) · 유문상(劉文相) 등 24명은 총괄기구로서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7개 의 수전소를 정하였다.<sup>36)</sup> 이종일(李鍾一) · 김광제 · 박영규 · 오영근 등은 수금 통합기구로서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설치했다. 총회에서는 소장 한규설(韓圭高 후임 尹雄烈), 부소장 김종한(金宗漢), 회계감독 박영규 · 서병규, 감사원 이강호 · 양기탁(梁起鐸) · 이면우, 사무원 윤치호 등 12명, 평의원 12인을 각각 선출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13도 대표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연합회의소도 조직되었다.<sup>37)</sup>

두 단체는 취지와 달리 체계적인 의연금 모집과 관리 등에서 서로 대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지원금총합소는 수합한 의연금을 주관하고 연합회의소는 일반 주민의 지도방침을 널리 홍보하는 등 분할 체제로 운영하기를 협의하였다. 비록 총괄적인 단일기구로서 통합은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sup>38)</sup> 양 조직체는

34)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최초 보도는 『제국신문』 1907년 2월 16일 잡보란 「國債報償計」라는 기사였다. 최초 의연자는 서울 정동에 거주하는 노동자 이정현 등 25명이다. 이들은 각각 20전씩을 모아 5원을 의연했다. 노동자들이 역사무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국채보상에 대한 소식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35) 김형목(2021), 「베델 · 양기탁 · 장지연」,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인물사』-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9권, 도서출판 선인, 164쪽.

36) 「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잡보; 「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잡보.

37)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17), 「국채보상연합회의소」, 『국채보상운동기록물』 1-취지서 · 발기문, 도서출판 선인, 267~268쪽.

지방에서 활동하는 국채보상소를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수합된 의연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남정철(南廷哲)을 사장으로 하는 국채보상중앙의무사도 황성신문사에 두었다. 발기인은 서병염(徐丙炎)·윤흥섭(尹興燮) 등 58명에 달하는 대규모였다.<sup>39)</sup> 이처럼 언론사나 계몽론자들 관심사는 국채보상 의연금 관리에 집중되고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이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실에 부인들도 자발적으로 여성단체를 조직했다. 정운갑모친 서씨(서채붕), 정운화처 김씨(김달준), 서석균처 최씨(최실경), 서학균처 정씨(정말경), 서덕균처 이씨(이덕수), 김수원처 배씨(미상) 등 7인은 2월 23일에 대구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한 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남성 중심에 의한 국채보상운동을 비판하고 나섰다.<sup>40)</sup> 이들은 취지문을 작성하고 패물을 의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지서를 나누어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갔다. 국채보상 소식을 전파하는 한편 여성층 참여를 독려하는 현장으로 활용하였다.<sup>41)</sup> 곧 가족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민족운동 일원으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이었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대구에서 이러한 활동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은 즉각적인 반향과 동시에 자발적인

38) 최기영(2009), 「국채보상운동의 확산」, 『애국계몽운동 II-문화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3,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 「國債報償佈告文」,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國債報償中央義務社再告全國同胞書」, 『만세보』 1907년 4월 18일 잡보.

40) 최혜령(2019), 「들불처럼 삶을 지핀 여성들」, 『빛, 나눔으로 빛이 되다-국채보상운동 이야기』, 156쪽.

41)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인물 발굴과 활동 등은 최세정(2016),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 7부인 이름찾기 사업보고서』, 대구여성가족재단.

참여로 화답하였다. 여기저기에 여성단체가 조직되는 가운데 활발한 참여는 국민운동으로 진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든든한 기반이었다.

…(상략)…당초 단체에서 정한 규정에는 부녀와 아동은 의연금에 대해 의논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부인들이 감격하여 부녀회(여성단체)를 만들고 흔쾌히 패물을 내어놓았다. 심지어 거지·백정·마부·나물 파는 여인·술집 노파·계집종·품팔이까지 말하기를 “나라가 있는 연후에 백성이 있을 수 있다”하고 다수가 의연금을 내니 가히 하늘의 뜻과 인심에 생생한 기운이 가득함을 볼 수 있다. 이는 2천만 동포가 다시 나아갈 날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금연회는 문명국의 위생 가운데 한 가지 일이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곧 국토와 겨레의 삶을 보호하는 문제이다.…(하략)…<sup>42)</sup>

이후 취지서나 권고문 등은 여성이나 결인 등의 의연금 참여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 등도 ‘미담 사례’로서 널리 알리는 등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sup>43)</sup>

대구에 사는 퇴기 앵무(退妓 鸚鵡)는 지화 100원을 가지고 직접 국채보상수금소를 찾아가 서상돈·김윤란·정재학(鄭在學) 등에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천한 사람으로 더욱이 남편이나 자식도 없으나 국민의무로 1,300만 원에 대하여 만분의 1이라도 출연할 터이다. 여자로서 감히 남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낼 수가 없어서 100원을 출연한다. 만약 남자가 천원이나 만원을 의연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니 세 사람은 각기 출연하겠다고 결의하였다.”<sup>44)</sup> 더욱이 의연금을 내는 일은 ‘국민의무’임을 강조하는

42) 『大邱西門外壽昌社國債志願金收合事務所公函』如左,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 잡보.

43) 박용옥(1984),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쪽.

44) 『義出男子』, 『황성신문』 1907년 3월 26일 잡보; 『靑坪論價』,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8일 잡보.

기업을 토했다. 대구단연동맹회 회원들은 이에 크게 자극을 받아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이어졌다.<sup>45)</sup>

3월 19일에 노기 부용(老妓 芙蓉)은 진주 의봉루를 지나다가 애국상채회에서 주최한 연설을 들었다. 곧바로 귀가한 후 국향(菊香)·도홍(桃紅)·봉란(鳳蘭) 등을 불러 모았다. 국채보상이라는 의무를 실천하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며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현장에서 국향 30원을 비롯하여 18명이 142원이라 의연금을 모았다. 여성들이 이와 같이 거금을 모집한 경우는 국채보상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sup>46)</sup> 부용은 자신들 입장과 여성들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신문에 투고했다. 경남애국상채회 발기인姜주식(姜周澁)은 기생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접고 지부로서 활동하기를 강요하였다. 기생 왕손만(王孫滿)은 이를 거부하며 “보국하는 마음은 각 개인의 의무이면 예에 따르면 남녀는 부동석”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sup>47)</sup> 부용은 일련의 사태를 신문에 알림으로 각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서울 대안동 국채보상애국부인회를 주도한 신소당(申蕭堂)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활동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상략)…이 몸이 여자이오나 이천만 동포 중에 참여하온 몸이온 즉 국가 화육중일물이라. 국채보상 발기하여 부인회를 실시하였사오니 이 마음 부끄러운 바는 무식소치오. 다행한 바는 동포부인께서 열심하오시니 동동촉촉(洞洞燭燭)

45) 김형목(2014), 「성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8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2쪽.

46) 최경숙(2017), 「부산 경남지역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과 여성구국운동의 재조명』, 208~209쪽.

47) 「芙蓉吐香」,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0일 잡보;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17), 「부용토향(芙蓉吐香)」,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간찰·통문·회문, 도서출판 선인, 140~142쪽.

하온 마음 하룻밤 사이에 생각하기를 애국성심은 남녀가 일반이요 경향(京鄕)이 없었는데 향곡에서 어떠한 부인께서 사업을 성입하오서 일체 합심하라는 희소식을 들으라고 각 신문을 보다가 천만 뜻밖에 진주군 부용 형이 애국부인회를 고동하오시니 진주에는 이미 논개(論介)가 있었고 평양에는 계월향(桂月香)이 계시더니.<sup>48)</sup>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기생들의 국채보상 참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신소당은 이를 비판하면서 가정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애국 성심이 부족하여 형의 충의가 간절하니 충성의 ‘충’자는 고금에 없을 듯하다. 두 겨드랑이에 날개가 없어서 바로 가서 칭송하지 못하나이다. 남산에는 지남석이 있고 북산에는 쇠가 있다 하는 말이 두 사람을 두고 말하는 듯하다. 형의 충의를 우리나라 백성으로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감히 어떤 사람들이라도 칭송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듯하다. 강주식이라는 남자는 알지 못하나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나움과 세력을 믿고 감히 저해(沮害)하는가. 그는 만민의 죄인이요 나라의 도적이다. 신명이 위에 계시니 어찌 재앙이 없겠는가. 강주식의 많고 많은 죄상은 차례로 성토하여 이천만 인민의 공분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 원하건대 부용 형은 대의를 저버리지 마시고 도내의 뜻있는 동포 부인들과 단결 합심하여 저와 같은 여인들도 나라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보시기를 천 번 만 번이나 바라나이다.<sup>49)</sup>

신소당의 신분 차별에 비판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빈부나 귀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취지서와 달리 실상은 가정부인이나 기생 등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시 현실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생이나 부실에 대한 사회적인 편향된 인식은 부분적이나마

48) 『진주부용형 전스려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7일 잡보.

49) 『귀부용형서』, 『만세보』 1907년 4월 2일 잡보;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17), 『신소당이 부용에게 부치는 편지(귀부용형서, 신소당)』,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간찰 · 통문 · 회문, 162~164쪽.

변화되었다.<sup>50)</sup> 그녀가 남자학교인 동광(東光)학교 교장으로서는 계몽 운동을 주도한 배경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헤이그특사 주인공인 이준 부인인 이일정(李一貞)과 더불어 여권 신장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sup>51)</sup>

여성들 적극적인 동참은 국채보상운동을 한 차원 승화시키는 계기였다. 생계조차 곤란한 걸인·고용인·노복, 사회적인 존재로서 버림받은 백정·무당·죄수 등도 의연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5~6세에 불과한 아동들도 세뱃돈을 의연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수원에 거주하는 영국인 성공회 신부 부재렬(夫在烈), 부산·인천·원산 등지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청국인, 평북 영유에 거주하는 프랑스 선교사 명약일(明若日)과 이화학교(梨花學校) 일본인 교사 마사야나기 요시아키(正柳好彬) 등도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52)</sup> 충북 옥천군 창명학교(彰明學校)에 재직 중인 쓰스미 고키치(堤廣吉)는 5원을 의연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본래 일본인이나 지금은 한국 강토에서 생활하니 당연히 만국통의(萬國通義)에 의하여 한국을 위할 것이라. 금일로 시작하여 나도 단연동맹하노니 학생 여러분의 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나에 못 미치리오 하고 의연을

50) 『晉州補償會詳報』, 『만세보』 1907년 4월 9일 잡보. 다음은 기생들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花叢秘訣』,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4일 잡보; 『화초·비결』,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4일 ㅅ·조).

論介는 우리 祖上, 桂月香은 우리 先生.  
殺身報國 저 忠節은, 千萬年에 빛나도다.  
우리도, 저들을 模範하여 視死如歸.

51) 김형목(2015), 「이일정, 마음의 상처를 애국혼으로 승화하다」, 『관보』 10월호, 독립 기념관; 김형목(2021), 「이준과 국채지원금총합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 인물사』-국채보상운동연구총서 제19권, 225~228쪽.

52) 『外國教師義捐』,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6일 잡보, 「국채보상의연금수입광고」, 7월 18일 광고; 김형목(2012),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는 발판을 마련하다」, 『김광제, 나랏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115쪽.

권고한다더라.<sup>53)</sup>

비록 자신은 일본인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운동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이는 만국통의에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치열한 경쟁시대에 처한 오늘날 자립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깨우는 직접적인 계기였다.<sup>54)</sup> 그는 일본인 교사이나 스스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이나 국가정신을 크게 각성시켰다. 국적을 달리하여 교육현장으로서 중요성과 가치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부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sup>55)</sup> 신문은 이와 같은 사례를 미담으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등 본연에 충실했다. 이리하여 일부 친일파를 제외한 한민족 참여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는 밑거름이었다. 단천군 국채보상소 발기인 이병덕(李炳德) · 김인화(金仁化) 등이 지은 「국채보상가」는 당시 열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애국심이어 애국심이어 / 대구 서공 상돈일세.  
1천3백만 원 국채를 갚고자 / 동맹단연회를 만들었다네.  
면실(勉實)하는 마음이 발양하니 / 대한국민이 분명하도다.  
지금 우리 국가 어려움에 처하니 / 누가 이런 열성 가질 것인가.  
경상도 대구 서공 등은 / 사람마다 찬미하는구다.  
북주관 아래 우리 동포들이여 / 대구 땅만 나라 땅인가.

53) 「筆下層瀾」,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5일 잡보.

54) 김형목(2021), 「충청북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다」,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3권, 100쪽.

55) 「日人義捐」,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9일 잡보.

대한 2천만 민중에 / 서상돈만 사람인가.  
 단천군 이곳 우리들도 / 한국 백성 아닐런가.  
 외인 부채 이자가 불어나니 / 너무 많아 어이 감당하리오.  
 적의 공격 없어도 나라 자연 소멸되면 / 아아, 우리 백성들 어디 가서 사나.  
 이 나라 강토 없게 되면 / 가옥 전토는 누구 것인고.  
 빈부 따라 힘은 다르지만 / 국민 되고서 바라만 볼 것인가.  
 아홉 살 아이 이용봉(李龍鳳)도 / 세뱃돈을 얻어 보조하거늘.  
 감발할 일 감발할 일이네 / 충애심에 감발할 일이네.  
 포동 사는 안형식(安衡植)이 / 지금 여섯살 어린애로서.  
 아버지의 의금내는 것 보고 / 구화 2원을 꺼내 바쳤네.  
 애국사상 저러하니 / 하늘이 돌보아 주리로다.  
 6세 9세 아이들도 / 외인 부채에 저러하거늘.  
 모든 군자여 모든 군자여 / 때를 잃지 말고 보상하오.  
 무릇 국채 다 갚는 날 오면 /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 우리 단천 여러분이여.<sup>56)</sup>

장날을 통하여 노래와 함께 ‘미담사례’가 전파되는 가운데 의연금 모금은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소식을 접한 광무황제는 스스로 단연한다는 결심을 밝혔다.<sup>57)</sup> 이에 방관적인 지배층도 동참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채보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날의 ‘단골 메뉴’는 바로 국채보상과 관련된 소식이었다. 교통이 불편한 함경도·강원도는 물론 바다 가운데 제주도와 울릉도 등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외 한인사회 특히 미주지역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였다.<sup>58)</sup> 누구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56) 『국債報上歌』,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4일 잡보.

57) 『大哉皇言』,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잡보.

58) 김형목(2021), 『강원도·제주도·국외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5권.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능력에 따라 의연금을 내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 이제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실천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완만하나마 절감하였다. 참여를 통한 자신감은 스스로에게 장래를 향한 부푼 꿈을 일깨우는 ‘희망봉’이었다.

#### IV.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각지에 국채보상소 설립과 취지서가 발표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제 의연 활동은 신분 고하나 지위 등에 전혀 상관없이 일종의 의무로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김광제가 충남 보령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욱 열기를 드높이는 원인 중 하나였다. 홍주의병장 문석환(文奭煥)은 쓰시마(對馬島) 유폐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마도일기(馬島日記)』에서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sup>59)</sup> 쓰시마에 유배 중에도 국내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운동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국채보상에 대한 문제는 1907년 새해 벽두부터 달군 “뜨거운 감자”임을 엿볼 수 있다.<sup>60)</sup>

신문과 장사꾼 등을 통해 각지의 국채보상 소식이 전파되었다. 충청도 54개 군 유지들은 「국채보상의조권고문」을 발표했다.

백성이 있는 연후에 나라가 있으며 나라가 있는 연후야 백성의 안락함이 있음은 고금 천하에 변함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날 백성이 있어도

123~124쪽.

5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7), 『마도일기(영인)』, 17쪽.

60) 김형목(2020),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발전」, 『충남독립운동사』 I-국권회복운동 · 1910년대 독립운동, 294쪽.

안보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는 쇠약해지고 국가가 있어도 부강하지 못하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다행히 대구에서 단연회가 시작되어 서울에서 기성회가 설립되니 이는 우리 동포의 제일 중요한 의무이며, 이 일이 성사되는 날에는 우리 동포의 제일 행복입니다.

본인 등이 손벽을 치고 춤 출듯 좋아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충청도가 다른 지방에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로 떳떳하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 힘껏 의연하여 기필코 나랏빚을 갚아 다시 국권을 회복하면 신선스러운 우리 마을에 화창한 봄날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태평화합한 상스러운 기운이 2천만 동포에게 회생할 것이니 이는 국가의 행복이자 백성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sup>61)</sup>

권고문 발표된 전후로 도내 각군 유지들도 국채보상소 조직과 취지서를 발표함으로 분위기 확산에 노력했다. 이들은 국채보상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호서협성회국채보상의 연권고문』도 역시 주민들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sup>62)</sup> 아울러 장날 등을 이용하여 동서고금 역사에 나타난 구체적인 애국적인 활동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였다. 직산·목천·천안지역에도 취지서를 발표와 동시에 구체적인 의연금 모금을 위한 국채보상소를 만들었다. 아쉬운 부분은 취지서가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천안지역과 관련된 국채보상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직산과 천안은 발기인이 27명과 15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호응도를 보여준다. 반면 목천은 김상희 등 문종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등 취지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의연금을 모았다. 다만 호서지역을 아우르는 취지서는 발표되었으나 이후 활동을 전혀 파악할

61) 대구광역시(2007),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자료집』 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82쪽.

62) 『湖西協成會國債報償義捐勸告文』,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9·21일 잡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부터 수직적인 계통에 의해 추진되지 않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중앙·도별·군별·면별 국채보상소 조직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1> 천안지역 국채보상소 현황<sup>63)</sup>

| 지역별 | 발 기 인                         | 보상소 명칭      | 전거                                                       |
|-----|-------------------------------|-------------|----------------------------------------------------------|
| 충남북 | 충남북 54개군 유지신사                 |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 | 대1907.3.7, 3.17 · 19                                     |
| 충남  | 윤우 등                          | 호서협성회       | 대1907.5.19 · 21                                          |
| 직산  | 민옥현, 김세제, 임경재, 오혁근, 임궁호 등 27명 | 국채보상금수집소    | 황1907.3.11, 3.14, 3.16, 6.8, 1908.4.10                   |
| 천안  | 심상정, 조경희 등 15명                | 국채보상의무회     | 황1907.3.28, 4.4                                          |
| 목천  | 김상희 등                         | 국채보상회       | 황1907.3.19, 4.17;<br>大1907.5.8, 6.5;<br>만1907.4.23, 5.26 |

한편 충남에서 최초로 의연한 인물은 아산에 거주하는 양소사였다. 그녀는 주전원경 양성환(梁性煥) 딸로 이곳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청상과부가 되었다. 의연 소식은 너무나 참신하여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sup>64)</sup> 소식을 접한 아산군 둔포의 일신(日新)소학교 교직원과 학생 28명은 13월 40전을 의연하였다. 이 학교는 1906년 11월 전현직 관료와 유지 등 발기인 24명의 노력으로 개교했다. 이서면 문자(文旨) 사숙 7명도 2월 70전을 의연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sup>65)</sup>

63)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98쪽.

64) 『夫人愛國』,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6일 잡보; 김형목(2021),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을 거듭하다』,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3권, 79쪽.

65) 『황성신문』 1906년 12월 29일 광고,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급액수』, 1907년 3월 11일과 4월 20일 광고.

학생들 활동에 자극을 받은 일용노동자 안봉삼(安鳳三)은 국채보상 의연금 모금 소식을 접한 후 임금 중 80전을 부인에게 맡겼다. 수일 후 부인에게 지난번 맡겼던 돈을 달라고 하자, 부인은 2원이라는 거금을 내주었다.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다가 부인이 머리를 자른 사실을 발견했다. 부인도 의연금 1원을 내어놓는 등 진정한 ‘부창부수(夫唱婦隨)’로서 민족구성원으로서 ‘자기의무’에 충실하였다.<sup>66)</sup> 이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널리 알려지는 가운데 주민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끄는 활력소였다. 장수동 이주선 부실 최소사, 임봉호 부실 유소사 등과 고용인 김상옥·이주영 등도 각각 50전을 의연하였다. 고용인과 부인들 참여는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의연금 모금 활성화로 이어졌다.<sup>67)</sup>

아산·목천·청안 유림들 참여는 국채보상이 긴급한 현안임을 알리는 계기였다. 이들은 생활 정도에 따라 각 가구당 3~6냥씩을 차등 부과하려는 계획을 밝혔다.<sup>68)</sup> 목적은 시세 변화를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다. 향촌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과 같은 향촌공동체는 당시 주민들의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었다. 이는 사회적 공공성이 요구되는 근대 교육운동에 활용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천안군 심상정(沈相鼎)·조경희(趙慶熙) 등의 의무회 조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sup>69)</sup>

직산은 금광이 개발된 이래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배외의식이 고조된 지역이었다.<sup>70)</sup> 이와 더불어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 직산지회

66) 『賢哉婦人』, 『황성신문』 1907년 3월 27일 잡보; 『削髮義捐』, 『만세보』 1907년 3월 28일 잡보; 『國債報償捐義金收入廣告』,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4일 광고.

67) 김형목(2021),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3권, 79~80쪽.

68) 김형목(2008), 『한말 천안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0권, 93쪽.

69) 『國債發起人及趣旨一束』, 『황성신문』 1907년 3월 28일 잡보.

등이 설립됨으로 계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직산군수 곽찬(郭璨)은 국채보상수집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매우 드문 지방관이었다. 당시 상황을 “직산군에서 국채보상에 대하여 의금을 모으는데 관청에서 모금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의연금이 다수에 달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들의 1,000원에 달하는 모금에 그는 국채보상운동 선전을 위한 연설회장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월급 중 40원에 달하는 거금을 흔쾌히 의연했다. 군주사 이호성(李浩性)도 1개월 봉급을 의연함으로 주민들은 커다란 감동과 아울러 경쟁적인 참여로 화답하였다.<sup>71)</sup>

성환 학소동 최두경(崔斗卿)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서 가사를 방매하여 50원을 의연할 정도로 온 가족이 참여했다. 아들 최성학(崔性學)은 2환, 부인 서씨는 은반지 1개(시가 2냥5전), 모친 이씨는 은비녀 1개(시가 1냥2전)를 각각 의연하였다. 1906년 설립된 사립 경위학교(현 직산초등학교 전신) 교사와 재학생 35명도 17원 35전을 의연했다. 훗날 이 학교가 직산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으로 발전한 배경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문야학을 부설로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근대교육 수혜를 확대한 사실은 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sup>72)</sup> 고용인 염영린(廉英麟) · 윤복쇠(尹福釧)도 각각 1원과 10전을 의연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임병욱(林炳郁)은 「국채보상장려사」를 발간하여 군내 각 가정에

70) 황서규(1998), 『일본의 직산금광 탈취사』, 한국문화.

71) 김형목(2021),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3권, 82~83쪽.

72)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1907년 6월 3일 광고, 「稷校方針」 1909년 1월 19일 잡보; 「稷山郡의 設校」,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30일 잡보, 「稷山經緯」 1909년 1월 15일 잡보; 「경위교 흥왕」,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일 잡보.

반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또한 문중 남녀노소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여 상당한 지원을 얻었다.<sup>73)</sup> 이러한 노력은 직산지역이 국채보상운동에서 많은 참여와 더불어 의연금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참여를 통한 자각과 인식은 사회적인 책무를 실현하는 정신적인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목천군은 수신면 김상희(金相熙) 등의 국채보상회 발기로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문중 사람들에게 의연금 출연에 동참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간절하게 권유하는 까닭에 주민들이 감발하여 경쟁적으로 참여하였다.<sup>74)</sup> 아울러 그의 애국적인 열정에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북면 전곡리 조병길 등은 의연금 10원을 모았다. 일동면 반계의 윤씨 문중은 9월 10전, 일동면 화산의 윤씨 문중은 1원 30전, 이동면 삼한의 윤씨 문중은 10원, 이동면 매작의 윤씨 문중은 1원, 갈전면 면실의 윤씨 문중은 1원 90전, 북면 평리의 윤씨 문중은 1원 60전을 거두었다. 광기리 안동 김씨 문중도 20원을 모금하는 등 문중 단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였다.<sup>75)</sup>

목천군우지사 서상빈 등 상인은 34원 26전을 모금하였다. 갈병천 임동수 등도 16원 10전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일동면 윤씨 문중의 의연활동은 미담사례로서 소개되었다. 충남 목천군 일동면 변계리 삼한에 사는 윤행직(尹行稷)·윤탈해(尹泰夏)·윤행의(尹行義)·윤훈현(尹命鉉)·윤행주(尹行周) 등은 국채보상회를 발기하여 그 문중에

73) 『稷山義金收集』, 『황성신문』 1907년 3월 14일 잡보, 『林氏全家捐義』 3월 29일 잡보,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6월 3일 광고,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稷山郡西愁院』 9월 22일 광고.

74) 『修身爲國』, 『황성신문』 1907년 3월 19일 잡보.

75) 김형목(2020),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발전』, 『충남독립운동사』 I-국권회복운동·1910년대 독립운동, 317쪽.

의연금을 모집하여 대한매일신보사를 방문하여 전달했다.<sup>76)</sup>

목천지역은 일본군이 의병 토벌을 구실로 교회를 방화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으나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무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목천군 이동면 야소교당 교인 유중무·유성배·유우석·조성택 등 82명은 21원 5전을 모았다. 조성택은 조인원(趙仁元)으로 미군정기 경무국장을 지내고 대통령후보였던 조병옥(趙炳玉) 아버지이다. 유우석의 다른 이름은 유준석(柳俊錫)·유관옥(柳寬玉)으로 유관순 친오빠였다. 유중무는 유관순의 삼촌으로 충북 진천지역 전도사와 지령리교회 부속 진명학교 교사로 활동했다.<sup>77)</sup>

상인층은 일제의 경제적인 침략을 받는 최전선에 선 계층으로 국채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천안시장 상인들은 능력에 따른 의무금 배령에도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호응하였다.<sup>78)</sup> 의연금 모금 현황과 참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채보상금 모금 현황<sup>79)</sup>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전거                      |
|----|-------|----------------|-----|-------------------------|
| 천안 | 읍내    | 윤찬근, 심상정 등 4명  | 26원 | 황1907.4.4<br>합 84원82전5리 |
|    | 용리    | 김봉교, 김휘복 등 45명 |     |                         |
|    | 죽계    | 노원규, 이건여 등 2명  | 40전 |                         |
|    | 토정리   | 원재하, 최재석 등 15명 |     |                         |
|    | 천안정거장 | 전영모 등 34명      |     |                         |
|    | 상직리   | 박노영            | 20전 |                         |

76)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9일 광고, 『尹門出捐』 5월 8일 잡보.

77) 이덕주·최태욱(2019), 『유관순 가(家)의 사람들』, 신앙과지성사, 77~79쪽.

78)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97쪽.

79) <표 2>의 황은 『황성신문』, 대는 『대한매일신보』이다.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전거                      |
|----|---------|----------------|--------|-------------------------|
|    | 원리      | 최영보            | 60전    |                         |
|    | 도동      | 이상소            | 1원     |                         |
|    | 교동      | 한주복            | 30전    |                         |
|    | 신부리     | 조경희            | 50전    |                         |
|    | 거재      | 김명집            | 75전    |                         |
|    | 관리      | 최준철, 홍대섭 등 22명 |        |                         |
|    | 미봉리     | 이청식, 이병립 등 30명 |        |                         |
|    | 공2동     | 김상하 등 8명       | 3원     | 황1907.4.10              |
|    | 군서면 서당리 | 안제원, 안효우 등 30명 | 9원40전  | 황1907.4.19              |
|    | 서면 백석리  | 박준화, 전만풍 등 52명 | 14원10전 | 황1907.5.7               |
|    | 불무동     | 권중희            | 1원     | 황1907.5.7               |
|    | 읍내      | 심현택(전목사)       | 5원     | 大1907.5.9               |
|    | 읍내장     | 상민 서호순 등 57명   | 19원16전 | 황1907.5.15              |
|    | 원서면 대정리 | 유영복, 최세명 등 30명 | 5원20전  | 황1907.5.18<br>합 101원57전 |
|    | 군남면 구곡리 | 이병현, 한정석 등 18명 | 7원     |                         |
|    | 군남면 입암  | 심종완, 이소사 등 7명  | 1원20전  |                         |
|    | 군남면 삼기리 | 김제윤, 한보현 등 17명 | 5원20전  |                         |
|    | 북일면 송당리 | 인재선, 오관영 등 21명 | 11원50전 |                         |
|    | 원이면 입석리 | 목순규, 오우영 등 12명 | 8원     |                         |
|    | 읍내 객사 앞 | 송종현, 방구현 등 27명 | 9원60전  |                         |
|    | 소동면 평리  | 장예환, 배성희 등 13명 | 2원15전  |                         |
|    | 원서면 학계리 | 전남윤, 전현 등 16명  | 4원60전  |                         |
|    | 원서면 두지동 | 이상희, 안치중 등 33명 | 7원     |                         |
|    | 원서면 석우리 | 유정근, 김홍두 등 6명  | 1원40전  |                         |
|    | 군남면 통정리 | 임병준, 김기성 등 21명 | 5원10전  |                         |
|    | 원이면 칠전리 | 채규량, 성은기 등 39명 | 8원50전  |                         |
|    | 북이면 상두정 | 이풍, 이옥 등 39명   |        |                         |
|    | 북이면 신부리 | 김현제 부자 등 35명   | 13원    |                         |
|    | 원서면 공사동 | 유환식, 유병문 등 30명 | 4원30전  | 황1907.8.20              |
|    | 군남면 고좌리 | 홍우석, 김택현 등 24명 | 8원80전  |                         |
|    | 군남면 순상리 | 이종덕, 장영급 등 17명 | 7원10전  |                         |
|    | 군남면 지동  | 박홍식, 윤상원 등 14명 | 3원10전  |                         |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전거                          |                        |
|---------|----------------|----------------|------------|-----------------------------|------------------------|
| 목천      | 소동면 이곡         | 임석준, 임창준 등 15명 | 1원70전      | 황1907.8.21<br>총합 102원12전5리  |                        |
|         | 상리유량동          | 이병무, 이병찬 등 62명 | 13원30전     |                             |                        |
|         | 소동면 대사동        | 박노경, 심준택 등 11명 | 2원         |                             |                        |
|         | 소동면 소정리        | 맹문호, 박남규 등 6명  | 2원10전      |                             |                        |
|         | 군남면 공사동        | 창원유씨 문중 21명    | 20원        |                             |                        |
|         | 소동면 남판리        | 정봉교, 이만호 등 8명  | 1원5전       |                             |                        |
|         | 소동면 송정리        | 장일섭, 장업 등 19명  | 1원75전      |                             |                        |
|         | 원서면 용두리        | 심의숙, 채학목 등 20명 | 5원70전      |                             |                        |
|         | 원서면 하도중        | 현영주, 전영순 등 44명 | 8원10전      |                             |                        |
|         | 원이면 자오곡        | 박문보 일가 등 50명   | 21원50전     |                             |                        |
|         | 북이면 성인동        | 송순영, 김시영 등 5명  | 1원32전5리    |                             |                        |
|         | 북일면 신당리        | 송소사            | 30전        |                             |                        |
|         | 금곡             | 박일훈 등 13명      | 3원80전      | 大1907.8.16                  |                        |
| 소계      |                | 안제원 등 860명     | 474원85전5리  |                             |                        |
| 북천      | 북면 전곡리         | 조병길, 이종현 등 38명 | 10원        | 大1907.4.14,5.9              |                        |
|         | 일동면 반계         | 윤행직, 윤행옥 등 29명 | 9원10전      | 大1907.4.19,5.10<br>합 20원30전 |                        |
|         | 이동면 삼한         | 윤태하, 윤태오 등 15명 | 5원10전      |                             |                        |
|         | 일동면 화산         | 윤행의 등 윤씨 4명    | 1원30전      |                             |                        |
|         | 이동면 매작         | 윤행범 등 윤씨 3명    | 1원         |                             |                        |
|         | 갈전면 면실         | 윤명현 등 6명       | 1원90전      |                             |                        |
|         | 북면 평리          | 윤행주 등 5명       | 1원60전      | 황1907.5.15<br>합 11원36전      |                        |
|         | 이동면 한계리        | 서상만(전군수)       | 1원         |                             |                        |
|         | 갈전면 병천         | 임동수, 강세형 등 32명 | 16원10전     |                             | 황1907.4.23             |
|         | 이동면 사방리        | 한선영, 한갑영 등 8명  | 2원50전      |                             | 황1907.4.26             |
|         | 북면 채동          | 강용규, 유종면 등 19명 | 4원65전      |                             | 황1907.5.15<br>합 11원36전 |
|         | 북면 탑동          | 유선규, 원돈현 등 12명 | 4원31전      |                             |                        |
|         | 북면 신촌          | 유종훈 등 문중 7명    | 1원40전      |                             |                        |
|         | 북면 동지동         | 유춘규, 홍신유 등 5명  | 1원         |                             |                        |
|         | 이동면 발산         | 이승규(전승지)       | 200원       | 大1907.5.19                  |                        |
|         | 서면 장평          | 김원건, 박영성 등 28명 | 9원20전      | 大1907.6.5                   |                        |
|         | 서면 광기          | 안동김씨 문중 40명    | 20원        | 황1907.6.5                   |                        |
| 북면      | 이규명            | 7원             | 大1907.6.15 |                             |                        |
| 북면 호덕리  | 곽치교, 곽치공 등 20명 | 7원20전          | 황1907.6.25 |                             |                        |
| 일동면 하장리 | 고달주 등 3명       | 1원50전          | 大1907.7.13 |                             |                        |
| 이동면 대지령 | 동중             | 21원5전          | 대1907.7.14 |                             |                        |
| 일동면 동춘리 | 이재용 등 31명      | 10원            | 대1907.7.18 |                             |                        |
| 일동면 광덕리 | 이은목, 이종목 등 40명 | 22원43전         | 大1907.7.20 |                             |                        |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전거         |
|----|---------|-----------------|----------------------------|------------|
|    | 수신면 발산  | 이원규, 이수행 등 50명  | 11원92전5리                   | 대1907.7.24 |
|    | 이동면     | 대지령교회 교인 82명    | 21원5전                      | 大1907.8.16 |
| 소계 |         | 이승규 등 470명, 1동중 | 391원71전5리                  |            |
| 직산 | 읍내      | 곽찬(군수)          | 40원                        | 황1907.3.16 |
|    | 성환 학소동  | 최두경 일가 등 6명     | 53원10전,<br>은반지, 은비녀<br>각 1 |            |
|    | 읍내      | 이호성(군주사)        | 15원                        |            |
|    | 우혈리     | 정문교, 정경석 등 21명  | 13원30전                     |            |
|    | 교동리     | 차경모, 박우현 등 11명  | 6원60전                      |            |
|    | 각금리     | 박창근 등 3명        | 90전                        |            |
|    | 임리      | 차옥규, 유석창 등 19명  | 7원10전                      |            |
|    | 신무리     | 정찬교, 박만규 등 35명  | 20원                        |            |
|    | 학소동     | 이낙현 등 7명        | 3원90전                      |            |
|    | 읍내      | 정거장 사역부 20명     | 2원                         |            |
|    | 신대      | 고제룡, 박중련 등 10명  | 8원                         |            |
|    | 석실      | 이태의, 이경우 등 31명  | 11원80전                     |            |
|    | 와우동     | 정철규, 정남규 = 33명  | 15원                        |            |
|    | 광주동     | 민옥현 일가 등 30명    | 29원60전                     |            |
|    | 성환외리    | 방한교, 송재협 등 51명  | 71원10전                     | 황1907.4.20 |
|    | 가동리     | 한창희, 방규택 등 13명  | 5원40전                      |            |
|    | 보모로     | 이병식, 이병훈 등 23명  | 18원70전                     | 황1907.6.1  |
|    | 매곡내리    | 김연옥, 김성록 등 39명  | 24원80전                     |            |
|    | 동변면 군동리 | 김세계, 이호성 등 212명 | 211원                       | 황1907.6.3  |
|    | 군서면     | 민재기, 유병두 등 158명 | 106원20전                    |            |
|    | 삼동면 묵암  | 홍재구, 박제동 등 52명  | 246원90전                    |            |
|    | 삼동면 연봉  | 정광환, 임영선 등 25명  |                            |            |
|    | 삼동면 적정리 | 최용휴, 허습 등 36명   |                            |            |
|    | 삼동면 토산리 | 조영진 일가 등 32명    |                            |            |
|    | 삼동면 신두리 | 윤시준, 임노원 등 61명  |                            |            |
|    | 삼동면 우지곡 | 홍재복, 오기익 등 16명  |                            |            |
|    | 삼동면 강당리 | 이정복, 최한용 등 36명  |                            |            |
|    | 삼동면 용두리 | 홍병삼, 홍종구 등 24명  |                            |            |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선거                       |
|----|---------|-----------------|-----------|--------------------------|
|    | 삼동면 차상리 | 홍재우, 조희원 등 14명  |           |                          |
|    | 삼동면 발림리 | 김영신, 임구상 등 26명  |           |                          |
|    | 삼동면 유내리 | 유석운, 이인성 등 20명  |           |                          |
|    | 삼동면 유외리 | 김창섭, 이유정 등 29명  |           |                          |
|    | 삼동면 독정리 | 민성훈, 민태준 등 26명  |           |                          |
|    | 삼동면 상령  | 박춘이 등 6명        |           |                          |
|    | 삼동리 하리  | 김만현 등 63명       |           |                          |
|    | 삼동면 산정리 | 홍순철 등 30명       |           |                          |
|    | 삼동면 도죽리 | 심하택, 김춘배 등 65명  |           |                          |
|    | 삼동면     | 경위학교 학생 35명     |           |                          |
|    | 이서면 올가리 | 이정규, 이범규 등 13명  |           |                          |
| 직산 | 이남면 오색당 | 이민우, 홍종욱 등 35명  | 20원46전    | 황1907.6.18               |
|    | 이남면 신리  | 임백성, 지중오 등 24명  | 13원60전    |                          |
|    | 이남면 월경  | 원궁연, 김영진 등 10명  | 5환85전     |                          |
|    | 이남면 요동  | 유하중, 유희중 등 15명  | 10환70전    |                          |
|    | 이남면 분방리 | 임현준, 정경희 등 19명  | 7환90전     |                          |
|    | 이남면 남창  | 유병규, 유만동 등 22명  | 18원50전    |                          |
|    | 이남면 송당리 | 오석근, 오봉선 등 47명  | 20원95전    |                          |
|    | 이남면 명우리 | 신정만, 한사근 등 10명  | 3환20전     |                          |
|    | 이남면 천흥  | 이문규, 이정규 등 68명  | 32환55전    |                          |
|    | 이남면 저동  | 이세기, 채동녕 등 68명  | 4환70전     |                          |
|    | 이남면 복덕리 | 김기필, 김종국 등 11명  | 4환70전     |                          |
|    | 이남면 정촌  | 이종대, 홍재리 등 38명  | 15원60전    |                          |
|    | 이남면 소조리 | 이학래, 김세기 등 39명  | 17환10전    | 황1907.6.19<br>총합 223원75전 |
|    | 이남면 석교리 | 신병은, 유서현 등 47명  | 17환50전    |                          |
|    | 이남면 수월리 | 김달석, 안병식 등 14명  | 3환60전     |                          |
|    | 상무우사    | 윤계진, 민종필 등 115명 | 42원25전    | 大1907.9.1                |
|    | 이북면 대하리 | 서장순, 신소사 등 8명   | 199원78전5리 | 大1907.9.1,9.4            |
|    | 이북면 안양리 | 이덕심, 김경심 등 26명  |           |                          |
|    | 이북면 궁리  | 권영선, 안공필 등 24명  |           |                          |
|    | 이북면 사동  | 조연범, 고대약 등 17명  |           |                          |
|    | 이북면 수천리 | 서상원, 서상현 등 36명  |           |                          |
|    | 이북면 홍경리 | 고치경, 이연선 등 16명  |           |                          |

| 지역 |         | 참여인원            | 모금액    | 선거                     |
|----|---------|-----------------|--------|------------------------|
|    | 이북면 신정리 | 서정찬, 서용석 등 31명  |        |                        |
|    | 이북면 지족향 | 오현복, 한종석 등 34명  |        |                        |
|    | 이북면 도감리 | 유병순, 오양호 등 38명  |        |                        |
|    | 이북면 학백동 | 한성백, 엄운교 등 12명  |        |                        |
|    | 이북면 중령리 | 조운서, 권치삼 등 11명  |        |                        |
|    | 이북면 대정리 | 오철근, 김재승 등 44명  |        |                        |
|    | 이북면 하령리 | 이덕고 가족 등 16명    |        |                        |
| 직산 | 삼동면 차상  | 조종식 등 3명        | 2원50전  | 황1907.9.22<br>합 97원75전 |
|    | 이남면 저동  | 김순이, 이광삼 등 15명  | 1원50전  |                        |
|    | 이남면 석교  | 박무병             | 30전    |                        |
|    | 이남면 오색당 | 오궁근             | 60전    |                        |
|    | 일서면 전리  | 홍재경 등 17명       |        |                        |
|    | 일서면 마산리 | 이원규 등 39명       |        |                        |
|    | 일서면 독정리 | 방경재 등 14명       |        |                        |
|    | 일서면 송기동 | 박성래 등 16명       | 9원25전  |                        |
|    | 일서면 신성리 | 방주석 등 12명       | 3환50전  |                        |
|    | 일서면 갈산리 | 김낙현, 임형교 등 13명  | 4환40전  |                        |
|    | 일서면 시목동 | 김향수, 이범익 등 11명  | 2환60전  |                        |
|    | 일서면 모사리 | 김응두 등 9명        | 4환     |                        |
|    | 일서면 상남리 | 신태직 등 10명       | 3환40전  |                        |
|    | 일서면 부대  | 이건호 등 11명       | 3환     |                        |
|    | 일서 자은가리 | 박진규 등 34명       | 24환30전 |                        |
|    | 일서면 독령리 | 김진국 등 12명       | 4환40전  |                        |
|    | 이남면 오색당 | 오궁근             | 60전    |                        |
|    | 이동면 석교  | 박무병             | 30전    |                        |
|    | 이동면 저동  | 김순이 등 15명       | 5원60전  |                        |
|    | 이동 삼동차상 | 엄은교 등 2명        | 1환50전  |                        |
|    | 이동면 군동리 | 이봉쇠, 경위학교 등 4명  | 60전    |                        |
|    | 이남 서수혈원 | 윤창여             | 1환     |                        |
|    | 이동 삼동차상 | 엄은교 등 2명        | 1환50전  |                        |
|    | 이동면 군동리 | 이봉쇠, 경위학교 등 4명  | 60전    |                        |
|    | 이서 매곡외리 | 동중              | 5원     | 황1907.12.8             |
|    | 동서면     | 임면재, 민홍호 등 103명 | 112원5전 | 황1908.4.10             |

| 지역      | 참여인원               | 모금액         | 전거 |
|---------|--------------------|-------------|----|
| 일서면 추월원 | 한백원, 경위학교 32명      |             |    |
| 삼동면 신두리 | 윤시준, 윤경우 등 26명     |             |    |
| 삼동면 하리  | 김우현, 김광연 등 14명     |             |    |
| 삼동면 적정리 | 최용휴, 이준익 등 20명     |             |    |
| 삼동면 도랑리 | 김춘배, 이태형 등 21명     |             |    |
| 삼동면 산정리 | 염수란, 김준식부인 2명      |             |    |
| 삼동면 상령  | 박춘삼, 심순원 등 6명      |             |    |
| 이남면 분방리 | 오촌인봉               |             |    |
| 이남면 명우리 | 신정만, 한사근 등 10명     |             |    |
| 이남면 오색당 | 이민우                |             |    |
| 이남면 신리  | 임백성                |             |    |
| 이남면 군동리 | 김칠용, 심선심           |             |    |
| 이동면 모곶리 | 동중                 | 17원50전      |    |
| 이동면 호계리 | 동중                 | 12원90전      |    |
| 이동면 사장  | 동중                 | 12원60전      |    |
| 이동면 하장  | 동중                 | 36원75전      |    |
| 이동면 당곡  | 동중                 | 2원          |    |
| 이동면 동계리 | 동중                 | 9원50전       |    |
| 이동면 구덕리 | 동중                 | 3원          |    |
| 이동면 신전리 | 동중                 | 3원          |    |
| 소계      | 민옥현 등 2,104명 동중 다소 | 1,677원53전5리 |    |

<표 2>에 나타난 바처럼 참여 인원이나 모금액에서 지역적인 많은 편차를 보인다. 직산은 목전에 비해 엄청난 거액을 모금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금광 개발에 따라 일찍이 외세 침탈을 경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의연금 열기가 침체된 이듬해 4월까지 모금된 사실은 직산인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 세계와 소통으로 3·1운동 당시 여학생 주도에 의한 만세운동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sup>80)</sup> 반면 목전은 전통적인

80) 김형목(2022), 『천안지역 3·1운동과 독립운동가들』, 『다시 조명해 본 천안학의 이해』, 249쪽.

가치관 강하여 충의관에 충실하나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여성들 참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미담사례’로서 소개되는 정도이다. 소수만이 참여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는 가정부인들을 각성시키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여성단체에 의한 모금은 충남에서 전무하다. 강한 보수성으로 여성들 사회활동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일상사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자극제였다. 소중한 경험은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났다.<sup>81)</sup> 지방관리 등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이나 신문 보도 등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함으로 민족운동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학생들도 “국력=힘”이라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대응책도 스스로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V.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천안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사회변동과 이를 타개하려는 의지가 분출되고 있었다. 동학과 외래종교인 기독교 전래, 금광과 광산 개발에 따른 광산촌 형성, 대한자강회·대한협회 직산지회와 기호흥학회 직산지회·목천지회 설립인가, 경부선 개통에 의한 일본인 유입,

81) 『排敵費可』,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4일 잡보; 『林氏全家捐義』, 『황성신문』 1907년 3월 29일 잡보.

의병전쟁 확산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감 고조, 인민대의제 · 의무교육회 조직 등은 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방안이었다. 목천지역에서 간행된 『동경대전(東經大全)』이나 지령리교회(현 매봉교회) 교인들의 국채 보상운동과 사립학교 설립 참여 등은 변화되는 상황을 방증한다. 주민들 일상사 변화는 인식 심화와 더불어 새로운 민중문화를 창출하는 생활현장이었다.

일본인거류지 형성은 전혀 다른 외래문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였다. ‘의구심과 호기심’인 작동하는 이중적인 시선이 공존하는 공간은 바로 일본인거류지였다. 직산금광 개발과 경부선 개통 이후 일본인 유입은 확산을 거듭했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민단법』에 의거한 자치규약을 제정하였다. 심상소학교를 설립 하여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 시행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인에 의한 토지침탈과 고리대금업 성행, 일본인 관리들의 불법행위 등은 천안인의 항일의식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82)</sup>

이곳 국채보상운동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중심적인 인물은 전현직관리 · 자산가 · 개신유학자 · 개신교인 · 상인 등 다양했다. 모금 방식은 생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곧 ‘의연금=의무금’이라는 인식은 당시 보편적일 만큼 확산되었다. 마을이나 문중 단위로 전개된 자발적 · 경쟁적인 동참은 이러한 인식에서 말미암았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채=국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sup>83)</sup> 고용인 염영린 · 윤복쇠 의연은 널리 이야기되는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82) 김형목(2021), 『부재렬과 외국인들』, 『국채보상운동 인물사』-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제19권, 249쪽.

83) 김형목(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102쪽.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천안군수를 포함한 관리와 유지 등은 군회(郡會)를 설치하는 등 변화에 부응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본회의는 매월 1차씩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을 실시한다. ② 남녀를 무론하고 국문을 진심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군수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한다. ③ 교육은 급무이므로 학교를 세울 터이니 군수는 각 면민을 훈유(訓諭)한다. ④ 누호(漏戶)·은구(隱口)는 우매악습이니 인민이 정소(呈訴)코자 하는 사람은 원고호적을 첩정(帖呈)하여 호적에 누락하는 사람은 권리를 박탈한다. ⑤ 정원과 황무지에 식목하되 개인은 10주 이상을 식재(植栽)하도록 군수가 기도(期圖)한다. ⑥ 무녀 등의 혹세무민하는 폐단을 엄금한다.<sup>84)</sup> 이는 여론 수렴에 의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지 계발을 위한 일환이었다. 한글을 통한 민족의식을 환기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명잡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관은 술선수범하는 자세는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생활 안정과 산림을 보호함으로 땀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제는 지방관이 교체되면 곧바로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목천군 유지들은 1908년 6월부터 시세 변화에 부응하여 기호흥학회 지회 설립인가에 노력했다. 이들은 본회에 자신들의 근대교육 보급을 위한 계획서와 함께 인가원을 제출하였다. 본회는 유병필(劉秉弼) 동의로 동년 8월 9일 통상회에서 시찰을 중지하고 설립인가를 가결했다.<sup>85)</sup> 이에 지회장은 임원과 조직 등을 보고하자, 본회는 9월 27일 특별총회를 통하여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임원진은 지회장

84) 『天郡自治』, 『황성신문』 1907년 8월 5일 잡보.

85) 기호흥학회(1908), 『본증기사, 회사일람』, 『기호흥학회월보』 3, 50쪽.

심형택(沈衡澤), 부회장 윤중섭(尹重燮), 총무 이정래(李廷來), 교육부장 권중모(權重謀), 재정부장 강민호(姜敏鎬), 회계 이정구(李鼎九), 서기 유규석(柳圭錫), 간사 강대형(姜大馨) · 김재정(金在政) · 임창준(任昌準) 등 6명이었다.<sup>86)</sup> 창립 초기 지회원은 81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다. 지회는 지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교육부, 재정부, 회계, 간사, 찬무원, 평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본회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된 사실을 잘 보여준다.<sup>87)</sup>

지회의 주요 활동은 역시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과 강연회 · 연설회 등에 집중되었다.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사숙 · 서당 등의 폐지론은 이러한 가운데 널리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이들에게 사숙의 운영자들은 ‘촌학구가(村學究家)로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생존경쟁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권회복과 민권신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다.’<sup>88)</sup>

계몽단체 활동과 국채보상운동 진전 등은 근대교육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온양 · 아산 · 천안 3개 군민들은 연합으로 농공학교 설립을 학부에 청원하였다.<sup>89)</sup> 이러한 노력도 학부 담당자나 지방관의 관심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직산 최두경은 변화하는 시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실천가였다. 그는 근대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천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sup>90)</sup> 모든 가족의

86) 기호흥학회(1908), 「회중기사, 회사일람」 · 「회중기사, 지회임원급회원명부(목천군)」, 『기호흥학회월보』 4, 53~54쪽.

87) 이승희(1984),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124쪽.

88) 皇成子, 「雜俎; 私塾을 一切打破」, 『기호흥학회월보』 1, 40~41쪽; 김형목(2001), 「기호흥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중양사론』 제15권, 한국중앙사학회, 43쪽.

89) 「設校請願」,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9일 잡보.

90) 『황성신문』 1907년 1월 7일 기사: 「직산학교 유지」,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5일 잡보.

국채보상운동 참여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근대교육 보급과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무였다. 직산군수 지희열(池喜烈)은 경위학교와 의성학교 유지방침에 대해 관내 면장과 이장은 물론 주민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 재정확충은 전답 매결당 1전식을 부과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는데, 사실상 의무교육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에 토지를 소유한 재정 인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다. 경위학교 학감 임경재(任景宰)와 의성학교 교사 전준기(全俊基) 등과 같이 상경하여 충남관찰사를 지낸 김가진(金嘉鎭)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sup>91)</sup> 이처럼 하나되기를 위한 국채보상운동은 사회적인 공익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깨운 생활현장이었다.

학교는 시세 변화를 일깨우는 현장이자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학부형회·찬성회 등은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다. 교육내실화는 교과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진전을 거듭하였다. 고등과 운영은 교사 양성을 위한 일환이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의성학교장을 맡은 성공회의 영국인 신부 부재렬(夫載烈)은 일본인 환영식을 위한 일장기 게양을 거부하는 등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웠다.<sup>92)</sup>

91) 『稷校方針』, 『황성신문』 1909년 1월 19일 잡보.

92) 김형목(2021), 『천안지역 계몽단체와 근대교육운동』,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57~58쪽.

## VI. 맺음말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한 나랏빚 갚기를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다. 자립경제를 통한 자주적인 국민국가 건설은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이었다. 참여를 통한 소중한 경험은 자기존재성을 자각하는 체험장이자 생활현장이었다.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자기역할’을 인식함으로 변화하는 시세에 부응하는 사회질서를 모색하는 의지와 맞물려 있었다. 을사늑약 이후 확산된 위기의식은 교육계몽운동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른바 ‘교육만능주의’라는 개념이 풍미하는 상황이었다. 문명사회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근대교육 시행뿐이라 인식했다.

주민들 부담에 의한 일종의 의무교육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진전을 거듭했다. 빈민자제나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대교육 수혜는 야학 운영으로 이어졌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대교육 확대는 현실 인식의 심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개천에 용이 난다.”는 속담처럼 하층민 자제 중 근대교육 수혜로 하급관리로서 발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대교육은 교육열 고조와 향학열이 확산으로 교육 내실화에 주민들 의지를 결집했다.

“양반과 쌍놈”이라는 강고한 반상의식(班常意識)은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는 당시에 엄연히 공존하고 있었다. 신문 광고란을 통해 지배층과 나란히 이름이 등재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현실로서 다가왔다. 더욱이 고용인이나 가정부인 등 하층인의 미답사례는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칭송되는 분위기였다. 이는 참여자에게 자긍심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증폭되었다. 사회적인 공공성 실현에 이름조차 없는 부녀들도 동참함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점차

등장할 변화로 귀결되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참여를 통하여 국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현장은 바로 국채보상소였다. 장날에 열린 연설회나 강연회는 시장이 ‘단순한’ 물물만 교환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임을 절감시켰다. 직산군수 곽찬은 직접 연사로서 국채보상을 국민의무로서 강조했다. 이곳에서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주민들 각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3·1운동 당시 광명학교 여학생과 광부들에 의한 만세운동을 촉발시키는 밑거름이었다. 이어 아우내 장터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은 이와 같은 귀중한 정신적인 유산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주민자치를 위한 천안군수 노력은 결국 주민들의 편익과 아울러 관리들 불법적인 행위를 금단하기 위함이었다. 아쉬운 부분은 지방관이 교체되면 이러한 제도는 곧바로 폐지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호흥학회 목천지회는 근대교육을 통한 민지 계발을 표방하였다. 이는 외부 세계와 소통으로 급변하는 현실에 부응하려는 목적이었다. 지회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과제이다.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일상사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채보상운동에 주목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서 찾아진다.

## 참고문헌

- 『正三品金鴻濟上疏文(1905년)』,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017-2021),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채보상 운동기록물』 1-13, 도서출판 선인.
- 대구광역시(2007),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자료집』 1-5, 국채보상 운동기념사업회 · 대구흥사단.
- 석람김광제선생유고집 간행위원회(2007), 『독립지사김광제선생유고집 민족해방을 꿈꾸던 선각자(증보판)』.
- 김형목(2001), 「기호홍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15.
- \_\_\_\_\_(2008), 「한말 천안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성격」,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 \_\_\_\_\_(2008), 「국채보상운동」,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한말)』, 8.
- \_\_\_\_\_(2012), 『김광제, 나랏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도서출판 선인.
- \_\_\_\_\_(2016),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 \_\_\_\_\_(2017), 「국채보상운동 110주년 특별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대통합의 정신유산으로 계승하자-」, 독립기념관, 『하나됨으로 뜨거웠던 그날들 1907년 국채보상운동』.
- \_\_\_\_\_(2020), 「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한 국채보상운동」,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독립운동사』, I -국권회복운동 ·

1910년대 독립운동.

\_\_\_\_\_(2021), 『충청도 국채보상운동』-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13, 도서출판 선인.

\_\_\_\_\_(2021), 『천안지역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과 성격』,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하, 노스보스.

\_\_\_\_\_(2022), 『충청도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다』, 국채보상운동기념 사업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한국의 서원』 - 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27.

박용옥(1984),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환문화원(1998), 『일본의 직산금광침탈사』.

이배용(1989),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이이화(2008), 『이희인 세성산전투를 이끈 곳곳한 선비』, 『파랑새는 산을 넘고』, 김영사.

정을경(2021),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 상, 노스보스.

최혜령(2019), 『빛, 나눔으로 빛이 되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홍성현(2021), 『국채보상운동 미담사례』 - 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20, 도서출판 선인.

\_\_\_\_\_(2022), 『국채보상운동 그 아름다운 주인공들 이야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 - 국채보상운동 연구총서 27,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廣瀨貞三(1985), 『19世紀末日本の朝鮮鉦山利權獲得について－忠清道稷山金鉦を中心に－』, 조선사연구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Cheonan as the History of Regional Movements

Hyung-mok Kim<sup>\*</sup>

## Abstract

Cheonan at the Late Period of Korean Empire was in an atmosphere of growing sense of crisis over colonization, including the Battle of Sesung Mountain, the Battle of Seonghwan, the development of Jiksan Gold Min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Rail. Meanwhile, foreign debt has snowballed, threatening the nation's existence. The movement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by repaying foreign debts was felt everywhere.

Articles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people were frequently reported in newspapers. The decisive factor that changed the situation was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based on 'sharing and responsibility'. The signal fire started in Daegu, but immediately spread to Korea and abroad. Like other regions, Cheonan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trend. Residents of Cheonan approached themselves as if they were the main character.

Enlightenment officials issued a statement of intent and organized a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committee to raise donations. This was the same as an important 'stepping bridge' that led to voluntary and competitive participation. Change came as a great stimulus to remind residents of their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The various national movements here during the Korean Empire share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as part of paying back

---

<sup>\*</sup> The Commemorative Association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 director  
(E-mail: hyungmok59@hanmail.net)

the national debt, but it greatly changed the values of the people of the time. Changes in perception to pursue ‘social publicity’ have made progress in line with this. The scene that awakened the importance of living together could be done in The statu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sn’t the historical fact that was not limited to men and women of all ages despite their status a true spiritual legacy that must coexist in the Multicultural Era. In the end, peace and freedom,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are essential factors such as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Keyword: Colonialization, Paying National Debt, Statement of Intent in National Debt Redemption, A Meeting of National Debt Redemption, Social Books, Sharing & Responsibility, Living Community, Multicultural Era